이베로아메리카 제9권 2호(2007. 12): 19-44

멕시코의 대안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El Barzón(부채자)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이 남 섭

<Abstract>

Alternative Social Movement of Mexico and Participartory Democracy: El Barzón Movement case

El presente artículo analiza el movimiento del Barzón como uno de los movimientos sociales alternativos en México contemporáneo. El movimiento del Barzón ha logrado un protagonismo de primer plano y demiensiones nacionales en México reciente, se ha convertido en un factor clave de la rearticulación del movimiento campesino mexicano, junto con el movimiento indígena encabezado por el EZLN. Después de presentar el origen del movimiento y su desarrollo histórico, el artículo analiza las características del movimiento, revisando su composición social, sus demandas y metas, su identidad ideológica y orgánica. El artículo concluye con una evaluación crítica y una propuesta de

* 이 연구는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과제로 총 2년차 과제 중 1차년도 연구결과임(KRF-2006-323-B00024). 이 연구의 1차 발표는 지난 6월 1일 대전 충남대에서 개최한 한국NGO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으며 이 때 귀중한 논평과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린다. 2차 발표는 2007년 7월 6일 덕성여대에서 개최된 2007한국사회포럼에서 국내 사회운동 현장실무자와의 비판적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지난 2007년 1월 방학 중 이 연구를 위한 멕시코 현지방문 조사 때 심층면담에 친절히 응해주고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과달라하라대학의 Enrique Valencia, Juan Manuel Ramirez교수, CIESA의 Jorge Alonso교수, 멕시코시의 UNAM대학 경제학과의 Enrique Dussel Petras교수와 CIESA의 Alberto Azis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 이 논문에 대해 유익한 심사평을 해 주신 『이베로아메리카』 학술지 소속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린다.

estrategias de desarrollo para el movimiento social coreano.

[Key Words: Alternative Social Movement / Debtors' Movement / Participatory Democracy / El Barzón / Mexico]

[주제어: 대안사회운동 / 참여민주주의 / 바르손 / 부채자운동 / 멕시코]

Ⅰ. 서론: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목적과 문제의식

이 연구의 목적은 멕시코의 대안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를 El Barzón(바르손)운동[1]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검토하는 데 있다. 그러나 먼저 Barzón운동이란 무엇이며 왜 나는 Barzón운동을 대안사회운동의 하나로 주목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Barzón운동이란 한마디로 (은행) 부채자운동이다. 이 부채자운동을 주목하는 이유는 Barzón운동이 무엇보다도 짧은 시기에 전국적인 호응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운동이기 때문이다. 즉 어떻게 시골의 단순한 농민운동에서 전국의 중산층부채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부채자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인 남부의 농민보다 북부의 농민들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였는가? 이 운동이 제기하는 대안사회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운동은 멕시코의 참여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 이 운동은 부채자들이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단순한 저항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21세기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새로운 주체인가?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출발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방법론과 연구의 관점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운동의 배경과

1) Barzón이란 이름은 멕시코혁명 당시 혁명에 참여한 농민들이 불렀던 혁명가의 가사에서 따왔다. Barzón의 사전적 의미는 조랑말과 수레를 연결하는 가죽 끈이다. 이러한 이유로 Barzón은 이제 '단합과 연대'를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다(Samperio 1996, 27)

조건을 다루고 제3장에서는 운동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운동의 성격을 이념, 조직, 구성원의 계층적 성격 그리고 타 사회운동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운동의 국제화와 과제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운동의 평가와 시사점을 다룰 것이다.

2. 연구방법론과 연구의 관점 그리고 분석틀

이 연구를 위해 나는 1-2차 기본문헌 조사연구와 현지 전문가 심층면담 조사방법론[2]을 병행하였다. 이 연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나는 우리 공동연구팀이 공유하는 관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3] 왜냐하면 이 공동의 관점이 본 사례 연구를 검증하는 이론적 방향이기 때문이다. 우리 공동연구팀이 공유하는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에 대한 정의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4]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사회운동이란 신자유주의 정책을 부정하고 공동체의 원리를 강조하는 운동의 담론(이념)과 운동 주체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운동을 의미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사회운동은 비계급적이고 비정당적이나 탈정치적인 것은 아니다.[5] 이러한 공동의 관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틀[6]을 사용할 것이다.

---

2) 필자는 지난 2007년 1.23-2.26일 까지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 3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현지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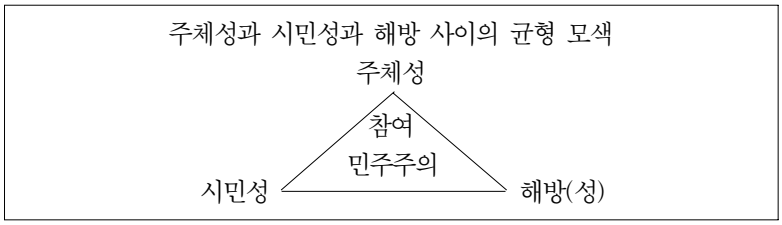
3) 이 연구는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기초학문사업 지원을 받아 현재 8명의 공동연구원(이남섭, 김세건, 김윤경, 김은중, 김항섭, 오삼교, 최윤국, 최금좌)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의 일부이며 이 공동연구를 위한 총괄적 분석틀은 연구계획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4) 여기서 대안사회운동의 정의는 포괄적 정의이다.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의는 아직 미완성된 상태이다. 완결된 차원의 정의는 사례검토가 끝나는 2차년도 연구가 완료되는 시점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5)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 연구팀, 2006 연구계획서, 미발표자료집, p.7.

6) 여기서 분석틀이란 사회운동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운동자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분석틀이 없어도 발생하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분석틀은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 연구팀이 공동으로 작성한 연구계획서, 미발표자료집, p.1-21와 공동연구원 오삼교의 최근 연구토론 자료(2007/5/30)에서 재인용함.

<분석틀 1> 아래 3개 요소 사이의 균형 정도



<분석틀 2>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과 대안사회운동의 대응 형태

		대안사회운동의 대응형태		
		수 용	저 항	거 부
		개별적 이익추구	정치사회적 저항	정치군사적 저항
신자유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정책 및 문화적 침투전략	집중	사회운동자체의 NGO화	폐쇄적 사회운동	독자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정체성에 기초한 사회운동
	산포	체제개혁운동	NGO+공동체 중간형태	과거의 사회주의적 혁명운동

<분석틀 3> 운동의 발전단계별 분석 주요 변수

		관계 구조와 주요변수				
		운동조직 내부리더쉽	대항세력과의 관계자원	여타세력 및 부문과의 관계지지의 폭	국가와의 관계 동원규모	지배구조와의 관계
운동발전단계	초기 저항	부분적 시도와 재편	무시, 억압, 부분적 포섭	보편적 정의 관념에 호소	부문의 요구제기	기득권구조 반대
	조직 구축	완결적 구조로 등장	무시, 억압에 대항 가능한 운동의 재생산구조확보	사회 각 부문의 상당한 동의와 지지 확보	정책 대안 제시 및 요구	기존지배 구조와 공존
	안정 성장	조직성장	파트너 인정	주요 사회세력으로 자리매김	정책대안 제시, 집행참여	지배 구조 내에서 발언권 확보 대안실천 가능성 증대

	대안 정착 단계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확대 재생산	대항세력의 자원과 정당성 약화	주요 정치/사회세력이 운동의 주요 가치를 흡수	국가정책변화 국제적 규범화	지배구조 교체 가능성

이 사례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제와 분석범주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균형 있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2장과 3장에는 <분석틀3>을, 4장과 5장에는 <분석틀1>과 <분석틀2>를 중점적으로 적용 검토할 것이다.

3. 선행연구 분석

이 운동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멕시코에서 먼저 시작하였고 그 다음이 미국이다. 멕시코의 경우는 메스트리에스(Mestries 1995), 삼페리오(Samperio 1996), 토레스(Torres 1997; 1998; 2000), 그라몬(Grammont 2001), 비스베르그(Bizberg 200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서 메스트리에스와 토레스 그리고 그라몬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그라몬은 Barzón운동을 정치적 민주화의 전환기에 있는 사회운동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미국의 경우는 윌리암스의 연구(Williams 1996; 2001)가 대표적인 연구이다. 윌리암스의 연구는 경제적 변동과정에서 시장의 유통구조와의 갈등관계에 천착하여 사카테카(Zacateca)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점에서 새롭다. 최근에는 유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의 마르치니(Marchini 2005) 연구가 대표적이다. 마르치니의 연구는 2005년까지를 연구범위로 포함한 최근의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들 한계는 멕시코 내 전체 사회운동과의 연관 속에서의 분석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2004년 필자의 간략한 소개(이남섭, 2004)가 유일하다.[7] 국내 학계와 언론에서 이 운동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은 무장반란인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관심이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이룬 주요한 성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운동이 지닌 의미와 문제를 재검토하려 한다.

7) 2004년 이전에 아주 단편적 차원의 소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잡지<현장에서 미래를> 2000년 3월호 <53호>에 실린 Dan La Botz(원영수 번역)의 글에 간단히 언급된다.

Ⅱ. 운동의 배경과 조건 - 기존 제도권 농민운동의 실패와 무리한 근대화의 결과

Barzón운동은 어떠한 배경과 조건에서 발생하였는가? 특히 북부에서 이 운동이 먼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Barzón운동이 출현하게 된 일반적인 배경은 다음 세 가지 요소로 요약 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으로 CNC(전국농민연맹)와 UNORCA 같은 기존 제도권 농민운동의 실패, 그로 인한 농민운동의 공백이 지적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인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경제위기의 심화와 나프타개방, 그리고 헌법 27조의 개헌으로 인한 농업포기정책에 따른 농민들의 분노에 있다(Bizberg y Meyer 2003, 352). 마지막 세 번째 요인으로는 Barzón운동이 증가한 1994-1995년의 불안한 정치와 사회적 상황이 언급된다. 즉 이 시기는 치아파스 반란, 국가의 범죄, 집권여당인 PRI(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의 부정한 선거승리, 불안정한 정치현실 등과 일치하며, 이외에 외채의 증가, 실업자의 증가, PIB의 감소, 부의 집중,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부채자 운동이 일어나는 복합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은 멕시코판 IMF사태에 따른 은행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이었다.

특별히 북부지역에서 이 운동이 먼저 일어난 주요한 이유는 북부지역이 농업근대화가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된 곳이면서 이에 따른 농민부채의 부담률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다는 점(<표1> 참고)과 기존 제도권 농민운동에 대한 실망감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다는 데에 있다(Zárate y Gracia 1994, 82-88). 북부지역은 무리한 신자유주의 근대화 정책의 문제점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지역이었다. 이것은 농촌에서의 신자유주의 근대화정책에 가장 많이 혜택을 받았던 북부의 중간급 또는 심지어 대규모 농업생산자들이 가장 먼저 이 운동에 참여한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멕시코 전체 상황에서 볼 때 멕시코국가의 전통적인 조합주의 체제는 해체상태 내지 기능중단 상태에 있었으며, 이를 대치할 다른 대안세력이 기존의 제도권내에서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할 새로운 대안적 사회운동이 제도권 밖에서 발생하게 되었고 북부에서는 Barzón이 남부에서는 EZLN이 출현하게 되었다.

<표1> 지역별 부채액 분포(1993-2000)

연번	지역과 농가 부채액(기준: 멕시코 백만 신페소; 1신페소=1us$)								
	북부지역	부채액		중부지역	부채액		남부지역	부채액	
		1993	2000		1993	2000		1993	2000
1	Sonora	916.9	739.2	Puebla	231.3	299.3	Tabasco	76.0	221.0
2	Sinaloa	416.5	401.1	Veracruza	366.0	272.0	Chiapas	82.0	214.0
3	Chihuahua	289.8	399.6	Guanajuato		121.5	Yucatan	21.0	
4	Jalisco	493.0	346.9	Michoacan	74.0	112.2	Quinta-na Roo	30.0	
5	Baja California	108.0	199.4	Mexico	150.0		Campe-che	97.0	
6	Tamaulipas	57.0	169.6	Guerrero	142.0				

(*출처: Zárate y Garcia 1994, 2004:85; Grammont, 2001:57-58)

Ⅲ. 운동의 기원과 전개과정 - 지역적 특성과 선거의 정치적 동학

Barzón 운동의 역사는 올해로 14년에 접어든다. 다른 사회운동의 역사와 비교할 때 짧지 않은 역사이다. 전개과정에서 이 운동은 굉장한 역동성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Barzón운동의 역사(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은 현재까지 토레스(1997)와 그라몬(2001)의 구분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그러나 이들의 최종 분석 시기는 2000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2000년 이후의 시기에 대한 분석과 성격규정은 없다. 이 연구에서 나는 Barzón운동의 역사 또는 운동의 발전과정을 크게 다음 네 단계로 나누어 분석 한다[8]: 1993/1-1993/12; 1994/1-1995/12; 1996/1-2000/12; 2001/1-2006/12. 각 시기는 운동의 시작과 확산, 절정과 분열, 분열과 축소, 현상유지 또는 재점화 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굴곡은 지역적 특성과 선거의 정치적 동학이 상호 작용하는 운동의 역동성과 다양성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점을 나는 주목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분석틀3>에 언급한 주요 변수들을

8) 토레스는 1997년에 7단계로 나누었다면, 그라몬은 6단계로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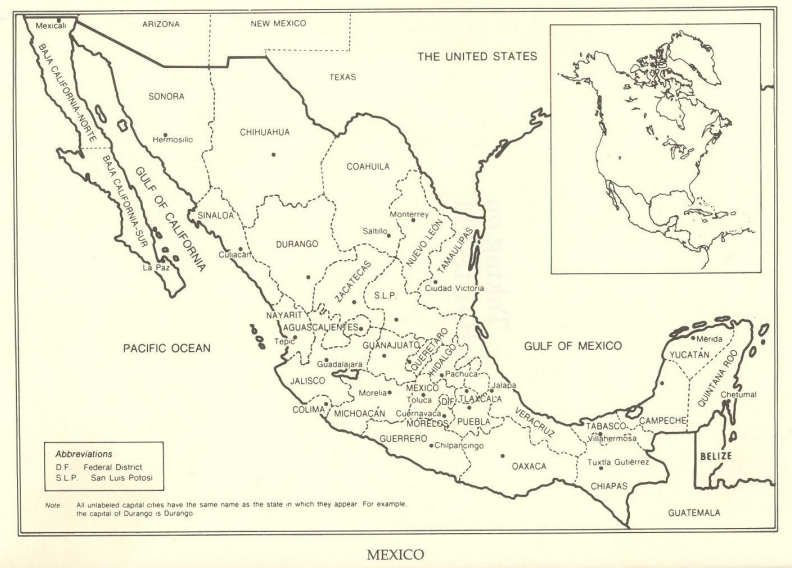
운동의 발전 단계별로 적용하여 검토할 것이다.

1. 운동의 초기단계와 지역적 특징(1993.1-1993.12)

처음 Barzón운동은 멕시코 북부 할리스코(Jalisco)주의 수도인 과달라하라(Guadalajara)시에서 7,000명의 중소 규모 농업생산자들이 1993년 5월과 12월에 200대의 트랙터 시위를 함으로써 알려졌다. 멕시코의 전문가는 1993년 멕시코 농민의 상황이 1910년 멕시코 혁명이 발생한 시기의 대농장주의 노예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였다고 지적한다. 차이는 그 때와 달리 이제는 은행가들이 새로운 대농장주가 된 점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시 결과 연방정부의 농업 투자와 보조금 지원은 감소했고 농산물의 상업화 프로그램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기되었다. 이 결과 농촌 근대화란 미명하에 기계화된 농기구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급상승한 대출금리로 인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Barzón을 조직한 그룹의 중요한 단체들은 대부분 농촌의 생산자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그룹은 북부지역인 소노라(Sonora)와 치우아우아(Chihuahua)의 농민그룹이었다.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Barzón은 그들의 핵심적 요구는 부채거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은행업자들이 Barzón의 부채거부 선언을 신용의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이외에도 Barzón은 대통령에게 은행가들을 통제하기 위한 심판관으로서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요청하였다. 왜냐하면 부채자들의 부채는 멕시코 국가(또는 정부)가 채택한 잘못된 농업정책의 결과이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Barzón 운동의 지역적 기원은 멕시코 북부의 소노라 지역과 치우아우아 지역에 있었다. 이들 지역에서 만기도래어음(cartera vencida)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다. 농촌생산자들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포럼의 행동과 제안들이 활발하였다(Grammont 2001, 69-70). 이후 운동은 할리스코와 사카테카(Zacatecas) 그리고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사파티스타(Zapatista) 운동이 남부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어 갔다면, Barzón 운동은 북부에서 시작하여 남부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그림1>참고).



<그림1> 운동발생의 경로 및 지역별 분포도

2003년 보고에 의하면 전국의 22개주[9]에 643개의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리하여 Wall Street Journal의 기자는 "멕시코 전국이 Barzón운동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El Norte, 01/09/1995; Grammont 2001, 167에서 재인용)는 기사를 긴급하게 뉴욕으로 송고할 정도였다.

이후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Barzón 운동에 참여하였고 1993년 9월에는 약 만 명의 회원이 가입하였다. 여기에는 소규모의 생산자뿐만 아니라, 대기업가 등도 포함된다. 이 시기에 많은 행진과 트랙터 시위가 있었다. 지역적 차원과 광역 차원에서 시위가 있었다. 특히 과달라하라시 중앙광장에서 행한 52일간의 트랙터 시위와 택사스 국제다리 점거는 이 시기 운동의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이 시기의 정점은 멕시코시로의 행진과 이를 이끈 지도자에 대한 탄압이었다.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운동조직 내부의 리더십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구

9) 이들 22개 주는 Chiuahua, Zacatecas, Jalisco, Michoacan, Aguascalientes, Colima, Durango, Sinaloa, Chiapas, Oaxaca, D.F, Nayarit, Guanajuato, Yucatan, Tabasco, Veracruz, Estado de Mexico 등이다.

축되었다.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배세력은 무시 내지 억압적 반응을 나타냈다면, 다른 사회세력과의 관계는 호소와 가벼운 연대의 차원에 있었다.

2. 운동의 팽창(정치화)과 조직구축단계(1994.1-1995.12): 농민운동에서 도시채무자의 저항운동으로

1994년 12월 멕시코 경제가 IMF 관리체제 아래 들어가면서 농가의 부채는 급증하였으며 많은 농민이 채무 변제 능력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은행부채금의 문제가 1988년까지 주로 농촌의 현상이었다면 1990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로 도시주민의 현상으로 확대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94년의 금융위기로 인해 대출이자가 1자리 숫자에서 17%까지 급상승하면서 채무자들의 이자 압박은 극한적 상황에 도달했다. 1995년 8월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780만 명의 채무자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6백만 명은 신용카드 채무자였다. 또 590만 명의 채무자는 평균 2만 페소(미화로 약 2만 불) 이하의 은행 빚을 안고 있었다.

1993년 9월초 Barzón에 등록된 회원은 약 1만 명 정도였으나 3년이 지난 1996년 말 통계에 의하면 약 백만 명의 회원이 등록되었다고 보고된다. 여기에는 농촌생산자, 카드사용자, 주택담보대출자, 상인, 중소기업가 뿐 만아니라 심지어는 대기업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Barzón은 농촌과 도시를 포괄하는 전국적 차원의 운동으로 급성장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조직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은행부채자운동, 신용카드부채자운동, 가족재산보호연맹운동 등 18개 그룹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들 18개 단체는 1995년 12월 개최된 전국회의(Congreso Nacional)에서 Alianza Nacional 'Barzón'(ANB:전국연합)을 새롭게 창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운동은 탈중앙집권화 방식으로 기초부문에 배경을 둔 세부조직들의 창출을 통해 확산해 갔다. 가령, 농업Barzón, 기업Barzón, 운송Barzón, 토르띠야Barzón, 수도권 Barzón이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그리고 최근의 조직으로 1999년 4월에는 Barzón 시민연합운동(ACMMB)이란 이름으로 연방중앙선거위원회(IFE)에 전국단위의 정치조직으로 등록하였다(Marchini 2005, 174).

Barzón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시위를 벌이고 사회의 다른 계층들과 동맹을 맺기도 했다. 이제 이 운동의 내

부 갈등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표2> 대표적인 양대 Barzón운동의 주요 특징

구 분	Barzón-Confederacion(BC) Barzón-Nacional Old Barzón	Barzón-Union(BU) New Barzón
조직시기	1994. 5	1994. 10. 13
대 표 자	Maximiano Barbosa	Juan Jose Quiriano Salas Alfonso Ramirez Cuellar Manuel Ortega
지 역	Jalisco, El Bajio region, Nayarit, Guanajuato	Zacatecas, Chiauahua, Sinaloa, D.F., Michoacan
특 징	농촌집중, 지역(정치)집중 국가(정부)와의 직접협상 선호 조합주의적 해결방식 선호	농민에서 출발 도시운동으로 전국팽창, 회원 80% 도시 여성참여 비율높음
지지정당	PRI	PRD

Barzón내부의 리더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즉 운동내부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사이의 경쟁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양한 지도자 사이의 충돌로 이어졌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사카테카와 할리스코 주의 과달라하라 지도자 사이의 분열이다(위 <표2>참고). 할리스코의 지도자는 PRI의 오랜 당원이었던 막시미아노 바르보사(Maximiano Barbosa)이고 사카테카의 지도자는 PRD의 6년차 열혈당원인 후안 호세 키리아노(Juan Jose Quiriano), 마누엘 오르테가(Manuel Ortega), 알폰소 라미레스 쿠에야르(Alfonso Ramirez Cuellar)이다. 바르보사는 Barzón은 농민운동으로 운동의 방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Barzón-Nacional을 조직하였다. 이와 달리 사카테카 지도자들은 집권당에 반대하는 여러 계층과 단체-가령 독립노조, 상인, 주민운동 등-들과 연대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arzón-Union을 조직하였다. 바르보사는 부채문제를 기존의 코프라티즘안에서 해결하려 하였다면, 사카테카 지도자는 집권여당과 신자유주의 틀을 넘어서 해결하려 하였다. 결국 바르보사는 할리스코주의 집권당 하원 후보직을 수락하였고, 사카테카주의 오르테가는 PRD의 연방의원 후보직을, 쿠에야르는 사카테카주의 PRD 상원의원 후보직을 수락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지도자는 모두 1994년 선거에서 패

배하였다. 이 두 그룹사이의 분열도 상호비방에서 상호 추방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도달하였다(Williams 2001, 175-176). 이 결과 Barzón-Union(신)과 Barzón-Nacional(구) 사이의 1차 공식적 단절이 발생하였다. 이 두 그룹사이의 분열은 지지정당의 차이로 명백히 나타났다. 신Barzón 은 PRD, 구Barzón 은 PRI로 나뉘어졌다. 이 모든 것은 양편이 Barzón은 비정당주의 조직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일어났다(Torres 1997, 321).

한편으로 Barzón-Union은 모든 형태의 농민요구를 포함하는 진정한 농민정당을 만들어 전국에 확산하려 하였다면, Barzón-Nacional은 비정치적 농민조합을 만들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론과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Barzón-Union의 경우 운동의 증가는 도시에서 발생하였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가 일어났다(Torres 1997, 322).

이 단계에서 운동은 억압에 대항하는 가능한 운동의 재생산구조를 확보하였다. 특히 국가와 지배세력의 정책과 다른 대안정책을 제시하고 기존 지배구조와의 공존이 가능해졌다.

3. 사회운동에서 정치(선거)투쟁의 시기(1996/1-2000/12) - 운동 노선의 다양화와 국제화 그리고 2차 분열

이 시기 운동의 특징은 정부와 Barzón사이의 법적 투쟁으로 표현된다. 이 법적 투쟁은 국회의원들의 제안과 부채자들에 대항한 Zedillo법[10]과 특별위원회의 구성으로 대표된다. 정부의 대응은 부채자들에 대한 재무부의 새로운 전략인 의무를 다한 고객을 포상하는 전략의 구사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항하여 Barzón 운동은 은행 사유화의 불법성과 부채자에 대항한 Zedillo법의 부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Barzón은 가족재산의 방어와 항의를 위해 <<전국회의>>를 조직하고 PRD와의 선거동맹을 통한 선거투쟁 전략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이 시기는 사회운동에서 선거투쟁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Barzón운동의 중요한 행동은 신자유주의 정치에 대항하는 사회조직과 정당들이 참여하는 <<전국회의>>라 불리는 광범위한 연합전선의 창립

10) 이 법은 Zedillo행정부가 바르손주의자들이 은행과 폭리이자에 대항하여 사용하려는 모든 법적 조치를 봉쇄하기 위해 멕시코시의 형사법, 금융조직법, 상법, 대출일반법, 멕시코시를 위한 민사법 조항을 개혁하려는 법적 조치임(Grammont, 2001: 181-184).

이었다(Grammont 2001, 197). 이 연합전선의 창립은, 라미레스 쿠에야에 의하면, 고전적 의미의 정치전선을 창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력사이의 정치적 일치를 달성하는 데 있었다(Grammont 2001, 197). 이러한 생각에서 Barzón은 세 개의 기존정당에 접근하였으며 PAN과 PRI내의 중요한 지도자들의 호의적인 선언을 획득하였다. 동시에 사회의 다른 부문(가톨릭교회, 대학, 기업협회, 생산자 조직, 노동조합 등)과의 연대를 위한 합의점을 체결하였다.

이 시기는 또 Barzón운동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산하는 단계였다. 1996년 11월 초 Barzón은 멕시코 주재 6개국 대사관에 만기도래어음의 상황과 여러 은행의 민간화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 순간은 Barzón이 운동의 방향 전환을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며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 사회조직의 분산, 부채자들의 상대적 격리, 만기도래어음의 재구조화 프로그램의 단기적 차원에서의 긍정적 효과와 1997년의 선거기간의 가까움이 그것이다(Grammont 2001, 199).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의 내부에는 세 가지 노선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하나는 실용주의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자율주의 노선이고 마지막 세 번째 노선은 정치적 노선이다(Grammont 2001, 199). 첫 번째는 Barzón을 만기도래어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두 번째 노선은 참가자들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존중하면서 정당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시민조직의 성격을 유지하려 하였다. 세 번째는 새로운 협상채널로서 정당과의 연결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Barzón-Union은 세 번째 노선에 의하여 분명하게 지배되고 있었다. 이들 사이의 긴장관계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1996년 12월에 수도권 Barzón이 주도하여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도하였다. 이외에 Metropolitano Barzón과 Causa Ciudadana는 멕시코시에서 단일후보를 통해 PRI에 반대하는 야당연합전선을 형성하자고 제안하였다.[11] Barzón내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하여 Barzón은 분열하였다(Grammont 2001, 201). 이때 Barzón의 2차 분열이 발생하였다.[12]

---

11) Causa Ciudadana는 최근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멕시코 수도권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임.

12) 1996년 5월 당시, BU는 협회가입 회원수를 1백만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당시 Barzón 가입 전체 회원수는 2백만 명으로 추정한다(Marchini 2005, 173).

요약하면 이 시기는 내부적 분열현상이 발생하였지만 운동의 안정 성장단계에 해당한다. 즉 운동이 한편으로 조직성장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운동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운동은 주요한 사회세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4. 위기와 조정의 시기(2000-2006) - 사회운동의 단계

마지막으로 대안정책단계 또는 위기와 조정의 시기이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를 어떻게 규명하느냐 하는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니다. 2002년에 Barzón운동은 여러 가지 중요한 행동들을 하였다. 지난 6년간의 시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보는 극단적 입장이 존재한다. 가령 토레스(Torres)는 운동의 부활 가능성을 할리스코의 상황분석을 근거로 제기하였고, 심층면담에서 이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였다. 또 경제학자 듀셀(Dussel)은 경제적 요인이 운동발생의 주요 요인이었고, 현재의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의 재점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하였다.[13] 경제현황과 전문가 면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필자는 위기와 조정의 시기로 규정 한다. 이 점은 운동의 전반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이 마지막 시기에 Barzón 운동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확대 재생산되고 대항세력의 자원과 정당성을 약화시켰다. Barzón 운동은 다른 주요 사회정치세력이 지닌 중요한 가치를 흡수하였으며 운동은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 Barzón 운동이 멕시코의 지배구조를 교체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Ⅳ. 운동의 성격: 목표, 이념, 조직, 계층

Barzón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Barzón운동은 어떠한 대안사회운동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이 운동의 이념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조직적 특징과 구성원의 사회적 계층은 어떠한가? 이러한 성격 규정을 통해 이 운동

13) Notas de Entrevista No.10. Entrevista con Enrique Dussel Petras

이 농민과 도시 중산층이 참여하는 과정과 원인 그리고 그 한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운동의 목표, 참여자의 사회적 계층, 이데올로기적 성격, 조직적 성격, 정당과의 관계, 운동의 행동양식, 타 사회운동과의 관계, 정부의 반응 등을 중심으로 분석 검토 할 것이다.

1. 운동의 목표 -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전국 생산자조직의 구축

운동의 목표가 무엇인가? 처음에 운동은 만기 도래된 어음에 대한 지불연기 요구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멕시코 농업에 대한 대안적 정책의 통합적 프로그램의 요구로 발전하였다(Mestries 1995, 162). 이 운동이 문제 삼은 만기도래어음의 재구조화는 다음의 두 가지 가설에 근거 한다: 만기도래어음은 생산자와 은행의 책임이 아니라 농업활동에 대한 이윤 획득 가능성을 막은 거시경제 정책에 기인한다. 따라서 생산자의 지불능력과 기간에 따라 재구조화하거나 그의 책임과 관련 없는 부채에 대한 취소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채의 많은 경우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 요구 외에 Barzón은 다른 요구를 더 하였다: 가령 전력의 지원과 농업생산품에 대한 정당한 보장가격을 요구하였다. Barzón은 “우리들은 대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농업 생산품이 가치를 지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부채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대출을 주면 그 다음 해에 똑같이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Torres 2004, 329).” 라고 주장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Barzón운동은 만기도래어음의 근본원인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농업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PROCAMPO를 선별적이고, 반생산적이고 선거용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Barzón의 정치적 목표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전국 생산자조직의 구축에 있었다. 이것은 Barzón운동이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방식을 창출하는 과정이며 Barzón운동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2. 계층적 성격 - 운동주체의 계층적 다양성

Barzón 운동의 사회적 주체는 누구인가? 농민운동인가 아니면 중산층 운동인가?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운동의 시작은 농민들이 하였지만 확산은

도시의 중산층이 주도하였다. 사실 이 운동은 자영농, 도시 중소사업가, 중간전문직 계층, 농민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라몬은 Barzón을 신자유주의 시대 멕시코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를 대표하는 시민운동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한다(Grammont, 2001). Barzón의 계층적 성격 규정은 좀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이 농민운동이가 또는 중산층운동인가라는 것보다 이 운동에 다양한 계층이 운동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사실에 있다. 운동주체의 계층적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에 대한 우리들의 가설적 개념정의와 일치하는 현상이다.

3. 정당과 타 사회운동의 관계 - 비당파적 입장과 실용주의적 입장

운동의 안정적 성장단계에서 보여주듯이 Barzón운동은 정당과 다른 사회운동과의 관계는 매우 유연하다. 먼저 정당에 대해 Barzón은 유연한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Barzón의 정당에 대한 실용주의적 입장은 “우리들은 당파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정치적인 것은 아니다(Samperio 1996, 137에서 재인용).”라는 표현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운동이 진행되면서 정당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집권여당(PRI)에 호의적이거나 또는 좌파야당(PRD)을 분명히 선호하는 지도자도 있었다. 가령 바르보사는 PRI의 구지도자로서 할리스코주의 PRI당의 하원후보직을 수락하였다면, 오르테가는 PRD의 국회의원 후보직을 수락하였다. 여기에 이 운동의 위험성과 가능성이 존재한다. Barzón은 비정파라는 선언과 다양한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의 지원과 영향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우리들의 대안사회운동 개념정의에 의하면 Barzón은 비당파적이어야 한다. 비록 개인적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한 것이나 Barzón의 탈당파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당파와 정치적 입장의 구분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점이 Barzón운동이 직면한 어려운 과제이다.

Barzón운동이 정당과의 관계가 미묘하였다면 타 사회운동단체와의 관계는 비교적 무난하다고 보여 진다. 특히 Barzón에 대한 시민사회의 첫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Barzón은 지역 언론과 교회 그리고 야당과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았다. 전국 차원에서 운동은 초기에 기본적으로 농민조직과 연대를 하였다. 치

우아우아에서는 폭넓은 농민단체와 연대하였다. 한마디로 Barzón의 타 사회운동과의 연대전략은 다양하였고 유연한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4. 이데올로기적 성격 - 혁명적 민족주의와 실사구시적 경제전략

Barzón 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대단히 다양하고 유연하다. Barzón은 ≪전국회의≫ 선언문에서 "운동의 목표는 시민의 공동이익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농업, 무역, 산업, 서비스업, 신용카드사용자의 조직을 목표로 하며, 애국적, 민족주의적, 다원적, 다부문적, 범계층적 운동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Marchini 2005, 173). 이 선언문에서 Barzón운동은 인간존엄성과 존엄성 회복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 한다: 우리는 짓밟힌 존엄성을 옹호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 입장은 사파티스타(EZLN)와의 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되었다.[14] Barzón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상징은 대부분의 멕시코 농민이 생각하는 멕시코 혁명이다. 이들에 의하면 멕시코 혁명은 변절되었다. 따라서 원래의 대의를 회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제의 대지주는 오늘의 은행가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구호와 깃발에는 비야(Pancho Villa)와 사파타(Francisco Zapata)가 현존한다. Barzón은 사회주의를 언급하지 않는다. 치아파스에서 EZLN의 무장봉기는 Barzón운동을 보다 급진화 시켰다. 사카테카에서 이 운동은 비야의 초상화를 내걸었고 혁명이후와 60년대 취했던 투쟁의 전통적 행동을 재개하였다. Barzón의 이데올로기적 기원과 방향은 혁명적 민족주의이다. 이들은 민족주권과 식량자급을 강조하고, 자유무역협정의 '투항주의적' 측면에 대한 반대를 하였다. 이들은 헌법 27조의 개정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토지를 위해 투쟁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토지는 팔수도 넘겨줄 수도 없는 그들의 어머니이자 그들의 부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Marchini 2005, 174).

Barzón은 처음에는 미시적인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가령 Barzón은 실업자의 실질적인 대책에 있어서 실업자의 부채를 탕감하라는 요구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이다. Barzón은 "내가 빚을 졌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

14) Barzón Union Web site(www.elBarzón.org) 참고(Marchini 2005, 174에서 재인용).

나 나는 정당한 것만 지불한다(Samperio 1996, 137에서 재인용)"는 Barzón의 팜프렛 구호에서 보여 지듯이 이들은 은행대출금으로 대표되는 사회문제의 총체적 해결을 위해 투쟁한다. Barzón은 신자유주의를 '배제의 경제'라 비판하고 '참여의 경제'를 요구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가 중산층이라고 할 때 Barzón은 이들 중산층의 생존권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경제영역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Barzón의 근대화에 대한 투쟁은 개방적이다. 생산을 위한 기술의 필요한 전환은 거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부족과 자연적 조건의 부족, 정부 당국의 경직성은 생산이 보다 나아지도록 전환하는 것을 막았다. 오히려 Barzón은 농촌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진정한 산업화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Grammont 2001, 166). 이러한 입장은 Barzón이 실사구시적 경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면모이다.

5. 운동행동의 양식 - 법적 수단을 통한 평화적 행동

Barzón 운동은 법적 행동보다는 직접행동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법의 경계 안에서 직접행동을 하였다: 가령, 블록, 은행과 정부기관 사무실의 점령, 행진과 시위, 고속도로나 국경다리에서의 트랙터 시위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트랙터 시위는 Barzón 운동의 상징이 되어 깃발의 로고로 사용된다. 트랙터의 고속도로 점거시위는 전 세계 TV로 방송되었고 전 세계 농민운동이 즐겨 사용하는 시위방법의 하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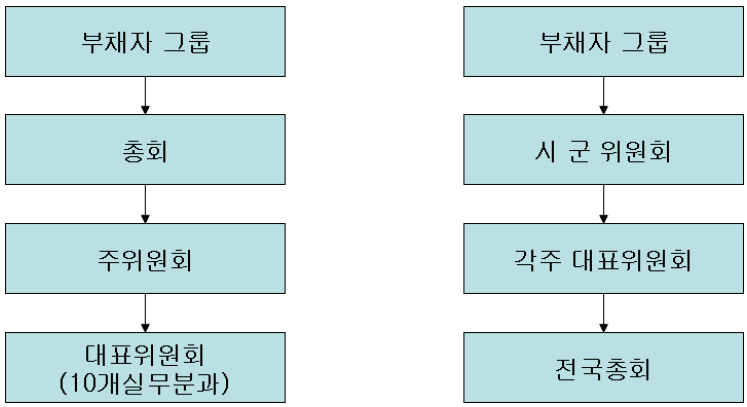
Barzón 운동은 초기에 법률적 투쟁은 덜 강조하였다. 아마도 그것은 자문위원의 준비부족이거나 또는 법적 자원의 부족에 기인한다. 또는 정치적 압력의 행동에 많은 희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운동의 초기에는 법률투쟁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나 도시의 중산층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변호사들이 대거 이 운동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12월에 전국에서 약 200명의 변호사들이 이 운동에 법률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법적 수단을 통한 평화적 투쟁이 가능해졌다(Grammont 2001, 160).[15]

15) 법률자문의 대표적인 사례는 Barzón법률 자문단이 발간한 사례집이다. 전국에서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Barzón을 위해 조직한 전국변호사협의회는 민간재판소에 5만개의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Grammont 2001, 163).

그러나 폭력사용에 대한 Brazón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대화를 운동의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하나 마지막 자원으로서 무장대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EZLN의 봉기이후 연방정부가 폭력이후에야 대화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폭력이 유일한 언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멕시코에서는 폭력 없이 대화를 하는 것은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Barzón은 이러한 폭력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arzón은 남부의 게릴라 운동에 합류하지 않았다.

6. 운동의 조직 - 탈 중앙집권적 조직

Barzón 운동은 젊고 역동적이다. Barzón에는 관료적 위계질서가 없으며 결정구조의 강력한 제도화도 없다. 즉 각 주마다 대표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643개의 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996년에 제1차 ≪전국회의≫를 조직하였다. Barzón은 중앙집권적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연합체이다. 운동조직의 사회적 이질(다양)성은 만기도래어음의 해결을 위한 문제를 함축하고 있었다. 탈중앙화된 연합체의 사례로 누에바 레온(Nuevo Leon)의 경우를 보면(<그림 2>참고) 이 운동은 72개의 그룹회원이 총회를 구성하고 그 아래 주 위원회가 있으며 그 아래 9개의 분과위원회와 홍보 기관지(Causa) 분과가 존재한다 (Grammont, 2001, 237).



<그림 2> Barzón 운동의 조직체계도

7. 정부와 은행의 대응

Barzón 운동에 대한 정부와 은행의 대응은 단일하지도 통일되지도 않았다. 선거기간동안에 정부는 Barzón과 같은 독립된 운동이 야당에게 가져갈 표를 의식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1993년 10월에 PROCAMPO를 조직하였다. 그 후 정부는 Barzón의 멕시코시를 향한 행진을 탄압하였다. 그러나 구속된 자들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당들의 연대는 이러한 탄압행위를 중단하게 만들었다. 1993년 12월에 정부는 Barzón의 몇몇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였다(Grammont 2001, 171).

그러나 민간은행은 연체금에 대한 지불의 최후통첩을 12월 말에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1월 신사파티스타의 반란은 Barzón에 대한 세력균형을 유리하게 하였으며 제도적 위기와 정권의 정당성의 위기가 강조되었다. 1994년 2월 말 정부는 은행을 설득하였고 Barzón은 그들 요구의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였다. 이 이후 Barzón은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한편은 정부의 이러한 해결책을 수용하려 하였고 다른 한편은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세르메뇨는 "국가의 권위주의 앞에, (Barzón) 운동은 조합주의적 매수와 자살적 충돌 사이에 놓여 있었다(Grammont 2001, 173)."고 분석하였다.

Ⅴ. 운동의 국제화와 과제

운동의 국제화는 모든 사회운동이 안정적 단계에 도달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Barzón 운동이 지닌 의미와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운동의 국제화 차원이다. 필자가 보기에 현 단계에서 이 운동의 국제화는 실패하였다. 이것은 자본가의 적극적 대응과 Barzón 운동자체의 소극적 자세에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이점은 거의 6개월 후에 일어난 남부의 사파티스타 운동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다. 사파티스타 운동이 운동의 국제화를 통해 운동의 확산과 성장을 달성하였다면, Barzón운동은 운동의 국제화가 미주대륙으로 제한되었다.[16] 이 운동의 국제화는 두 개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미국에 있는 멕시코인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지부를 조직하

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운동을 확산하는 것이었다. 1995년 이후 Barzón은 라틴아메리카의 부채자 운동과 접촉을 시작하였다. 즉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브라질, 스페인, 쿠바에 있는 비슷한 단체들과 접촉하기 시작하였다(Grammont 2001, 247). 2001년에는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개최한 세계사회포럼(FSM)에 참가하여 전 세계적 차원의 네트워크 구성을 시도하였다.

Barzón이 국제적 차원의 운동을 창출하려는 생각은 사회운동을 확대하려는 필요성 뿐 만아니라 부채자들의 클럽을 창출하는데 유리한 기반을 창조하는데 있다. 이 생각은 1984년에 쿠바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외채를 재협상하기 위해 제안한 것과 유사하다(Grammont 2001, 248). 1997년 11월에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부채자 대표들이 함께하는 모임을 구성하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부채자들의 법적 방어를 위해 국제적 차원의 협상체험을 계속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라틴아메리카 Barzón들이 라틴아메리카 의회로의 통합을 통해 범지역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Barzón운동의 국제화를 위한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기반위에서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부채자 운동의 구상이 가능할 것이다.

Ⅵ. 결론: 평가와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는 Barzón운동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가설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이 운동에 대한 평가와 이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직 진행 중인 이 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평가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이 운동이 대안사회운동의 개념정의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또 이 운동은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 이제 이 두 문제를 좀더

16) 사파티스타 운동이 인터넷 매체를 통한 운동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면, Barzón은 인터넷 매체의 활용이 소극적이다. 이 운동의 사이트(www.elBarzón.org)는 취약하다. 그러나 다른 언론(신문과 방송)매체의 활용은 적극적이라고 평가한다(Williams 2001, 188-197).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1. 평가 - Barzón 운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자신의 요구를 성취하였는가?

지난 14년간의 활동을 통해 Barzón은 멕시코의 농업정책과 금융정책 부문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필자가 보기에 Barzón은 신자유주의 농촌근대화와 금융정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중소농업 생산자 공동체를 위한 대안적 금융체제를 제시하였다고 본다. 비록 Barzón에 참가한 중 대규모 농업 생산자들이 개인적 이해관계 해결 차원에서 Barzón을 이용하려 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Barzón은 다수의 소규모 생산자들이 공동체적 행동을 취하도록 운동을 이끌었다. 특히 Barzón 운동은 정부가 대기업의 채무는 탕감해 주면서 국가정책의 실패에 하등의 책임이 없는 죄없는 대다수 국민의 부채는 탕감해 주지 않는 불평등한 부채정책에 저항하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증대해 갔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세디요 행정부가 추진한 은행예금보호기금의 공채화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여 임시국민투표에서 300만 명의 시민 지지표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 성과는 아마도 멕시코의 대안사회운동이 이룬 최대의 실질적인 대안이었다고 보여 진다.

2. 운동의 제도화와 민주주의의 문제

Barzón운동의 성과에 대한 낙관적 또는 비관적 평가와 무관하게 운동의 제도화는 현재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운동의 제도화가 초래할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Barzón주의자들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멕시코의 민주적 과정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이상적 모델에서 출발할 수 없다(Torres 1997, 332). Barzón의 경우에 있어서, 운동의 분열현상과 증가현상을 부정적이거나 또는 긍정적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사실상, Barzón조직의 상대적 증가와 확립은 대립되는 지도자 사이의 경쟁에 의해 방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세력의 개방적 정치행동은 민주발전의 조건을 창조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Barzón은 대안적 전략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왜 Barzón-Union은 민족적

농업정당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는 전선으로 변하였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또 Barzón-Nacional은 왜 비정치적이거나 중립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한 시도를 중단하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Torres 1997, 333). Barzón 운동의 제도화가 기존정당 조직에 초래하는 문제와 참여민주주의의 문제가 여기서 제기된다.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Barzón 주의자들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능하는 포괄적 경제가 없이는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Torres 1997, 338)". 이러한 의미에서 Barzón주의자들이 배제적 경제와 경제적 권위주의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운동의 제도화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Barzón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조직의 탈중앙집권화의 길은 제한된 기존정당 틀을 넘어서는 조직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메시지를 함축하기 때문이다(Torres 1997, 339).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Barzón 운동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대안적 사회운동의 특징 중의 하나는 기존의 이념적 틀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치아파스의 원주민반란과 베네수엘라의 혁명적 군부의 출현은 기존의 노동계급 중심의 혁명이론 또는 중산층 시민에 근거한 신사회운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다. 멕시코의 주류 노동운동이 노사정협의회를 통한 점진적 개혁의 길을 선택하였다면, 치아파스의 원주민들은 무장반란의 길을 선택하였다. 노동자만을 혁명의 주체로 간주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또 베네수엘라의 대중은 화려한 보수와 세련된 진보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안정적이나 반민중적인 양당 정치체제보다는 이념적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불안정하나 서민의 이익을 분명하게 대변하는 우직한 군부 출신 지도자의 혁명적 정치노선을 선택하였다. 군부를 지배계급의 억압적 무기로 간주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미에서는 제국의 이익보다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혁명적 군부의 출현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Barzón운동의 의미도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Barzón 운동의 목표는 단순하고 분명하다. 거창한 담론도 정교하게 다듬어진 이론적 틀도 없다. 간단한 구호와 안내 팜플렛이 전부이다. Barzón 운동은 정당한 채무를 변재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단

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 유지를 위한 집단적 저항이다. 이론의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팽창하고 지속된다. 이와 달리 한국의 급진적 사회운동은 이론은 심오하게 집필되고 출판되는 데 대중은 운동을 외면하고 이탈하고 있다. 어디에서 이러한 근본적 차이가 발생하는가? Barzón 운동의 출발점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고 대중이 직면한 일상의 구체적인 현실, 즉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부채 상황이다. 거창한 이론가의 삶과 대중의 일상 고통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Barzón 운동의 주체는 지식인이 아니고 대중 자신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왜 아직도 민중 또는 대중이 사회운동의 지도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가? 이것은 사회운동을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규정하고 분석하려는 한국 지식인의 이론 우선주의적 습관 또는 지적 전통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치아파스 반란에 이어 Barzón 운동의 사례는 우리가 이러한 관념(또는 담론)중심의 인식 틀에서 해방할 수 없는가를 묻고 있다. 이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 연구팀(2006),『2006 연구계획서』, 한일장신대학교 미발표 자료집, pp.1-48.

이남섭(2004),「소칼로문화, 국제적 연대의식, 이념적 실용주의」, 시민사회, No.14, pp.71-80

이남섭(2004),「신자유주의 사회정책의 변화와 NGOs의 대응」, 라틴아메리카 연구 pp.40-65.

이남섭(1994),「멕시코의 사회구조변동과 도시비공식부문」, 지역연구, Vol.3, No.3, pp.209-246.

이남섭 / 이성형(1998),「치아파스의 농민반란 연구」, 국제지역연구, pp. 109-147.

Alonso, Jorge / Garcia Colorado, Gabriel(coords.)(2000), "*Los derechos humanos y los retos del nuevo milenio*", *México: ITESO.*

Alonso, Jorge / Ramirez Saiz, Juan Manuel(coord.)(1997), "*La democracia*

de los de abajo en México", *México: La Jornada Ediciones/UNAM.*

Aziz Nassif, Alberto(coord.).(2003), "*México al inicio del siglo XXI. democracia, ciudadanía y desarrollo*", *México, CIESA/Porrua.*

-------y Alonso, Jorge(coords.)(2005), "*Globalización, poderes y seguridad nacional*", *México, CIESA/Porrua.*

------ y Alonso, Jorge(coords.)(2005), "*Sociedad civil y diversidad II*", *México: CIESA/Porrua.*

Bizberg, Ilan y Meyer, Meyer, Lorenzo(2003), "*Una historia contemporánea de México*", *Tomo1, México: OCEANO.*

De Grammont, Hubert(2001), "*El Barzón: clase media, ciudadnía y democracia*", *México: Plaza y Valdez.*

De Grammont, Hubert(1996), "*La sociedad rural mexicana frente al nuevo milenio*", *México: ITAM.*

Gutierrez Garza, Esthela(coord.)(1997), "*El debate Nacional 4. Los actores sociales*", *México: Diana.*

Isunza Vera, Ernesto y Olvera, Alberto J(coords.)(2006), "*Democratización, rendición de cuentas y sociedad civil: participación ciudadanía y control social*", *México: CIESA/Universidad Veracruzana/Porrua.*

Marchini, Genevieve(2005), "Financial Liberalization, the Banking Crisis and the Debtors' Movement in Mexico", *in Globalization, Reginalization & Social Change in the Pacific Rim*, *Mexico/Australia: Universidad de Guadalajara/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Mestries, Francis(1995), "El Barzón o la radicalización de los medianos y grandes productores agricolas", *Sociologia*, Núm. 28, mayo-agosto, pp. 143-176.

Samperio, Ana Cristina(1996), "*Se nos reventó El Barzón", México: Edivision.*

Zárate, Enrique Velazquez y Garcia, Alejandro(1993), "El Barzón o lo vientos que vinieron del norte". *El Cotidiano*, No.61, marzo-abril, pp.82-90.

Villarreal, Magdalena(Coord.)(2004), "*Antropología de la deuda. Credito, ahorro, fiado y prestado en las finanzas cotidianas" México:*

CIESA/Porrua.

Williams, Heather L(2001a), "*Social movements and economic transition: markests and distributive conflict in Mexico*", Cambridge: The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2001b), "Of Free Trade and Debt Bondage: Fighting Banks and the State in Mexico" *Latin American Perspectives* 28(4), pp.101-28.

-------(1996), "*Planting Trouble. The Barzón Debtors' Movement in Mexco*", San Diego: University of California.

www.elBarzón.org

CD Rom

Marcha de los Barzóneros en Zócalo, 2007/1/31

Notas de Entrevistas(No.1-11)

논문투고일자: 2007년 10월 26일

심사완료일자: 2007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2월 10일

이남섭(Lee, Nam-Sup)

한일장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E-mail: lns@mm.hanil.ac.kr